

대한민국 복지제도

어디로 가야하나 ?

2021. 03.

글쓴이 ; 최용호

010-3687-5932

chyhou@naver.com

머리말 ;

항상 어느 시대나 그러하겠지만,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어렵고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도 어수선 하다. 자본주의 발달의 결과로 부의 양극화가 필연적 이겠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그게 더 빨라지고 심화된건 사실인거 같다. 처음 맞이하는 새로운 현상은, 기존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복지는 이제 정책의 문제를 넘어서 정치의 가장 핫한 이슈가 되었고, 국민들에게는 삶의 문제이자 누구에겐가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핫한 화두가 복지제도 입니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가지고 해묵은 논쟁을 계속 하기도 하고, 집권당 여권에서는 기본소득, 이익 공유제 등을 주장하는가 하면, 야당에서는 경제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 하기도 합니다.

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한 사람으로서, 또 국립대학교라는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엄중한 시기에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 글을 통하여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대하여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함께 토론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선별하여 주던 복지제도를, 반대로 복지가 굳이 필요없는 사람을 국가가 선별하여 전 국민 중에서 선별한 사람을 뺀 나머지 국민들에게 조건없이 복지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렇게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복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많은 불편함이 해소되고 억울하게 혜택을 못받는 사람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해답이 존재한다는 의미도 되지 않을까요?

아무도 답은 모릅니다.

우리 함께 지금 그 해답을 찾아 길을 떠나 봅시다.

차례 ;

1. 현재의 상황

- 1) 자본주의 발달, 기술의 발달, 코로나의 출현으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다수 출현
- 2)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
- 3) 현재의 제도로 사회가 지속가능 한가 ?

2. 기존의 복지제도들을 알아봅시다

- 1) 선별적 복지제도
- 2) 보편적 복지제도

3. 새로운 복지제도의 제안(가칭 ‘맞춤형 복지’ 라 칭한다)

- 1) 복지의 본래 개념
- 2) 선별적 복지제도의 단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3)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자
 - 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찾는게 아니고, 필요없는 사람을 찾아보자
- 4) 구체적 방법(새로운 복지제도)
- 5) 새로운 제도의 장단점
- 6) ‘기본 생활비’ 개념
- 7) 새로운 제안을 하게된 이유 중 하나
- 8) 기존 지급하고 있는 복지비와의 관계설정
- 9) ‘기본 생활비’를 지급했을시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

4. 제안사항(결론)

5. 증세의 문제

6.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7. 기본소득과의 비교검토

8. 현장에서의 적용

1. 현재의 상황

1) 자본주의 발달, 기술의 발달, 코로나의 출현으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다수 출현하고 있다.

a. 자본주의와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부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기계, 로봇, AI 등이 빠르게 인간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상용화 되면 자동차 부품숫자가 줄어들어서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60%정도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b. 개혁, 혁신이 이루어지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까요?

혹자는 이야기 합니다. 개혁을하고 혁신을 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되어 모두가 잘 살게 될거라고. 과연 그렇게 될까요?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이나 혁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혁신의 목표가 기본적으로 비용의 절감, 시간의 단축, 품질향상, 인력의 감축 등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혁신을 하면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가 일정부분 창출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줄어드는 일자리가 훨씬 많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의 총량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총량적인 의미에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 이런 사회(대량 실업상태의 사회)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를 진지하게 토론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c. 부의 양극화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본으로 인한 소득증가율이 노동으로 인한 소득증가율보다 크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도 돈을 가진 사람의 소득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최상위 계급만 살아남는 세상이 되었다. 소위 일등만을 기억하는 세상이 되었다. 세상의 돈도 일등에게만 몰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량실업상태에서 엄청난 숫자의 극빈자들이 출현할 것입니다. 이미 출현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코로나가 없었어도 어차피 앞에서 열거한 a, b, c 항의 일들은 벌어지고 있었다. 단지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해서 시간적으로 빨라지고 심화되었다고 생각한다. 비대면 시대가 갑자기 오고, 강제로 영업시간을 제한함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을 뿐,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인터넷구매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계속 증가되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가 오지않았어도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 현상으로 어려움에 처해졌을 것이다. 또한 부의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야당에서는 경제정책을 잘못하여 경제가 망가졌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졌다고 비난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의 문제이고 사회의 변화현상입니다.

3) 현재의 제도로 사회가 지속가능 한가?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다. 자본주의와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일자리가 없어지고, 인터넷구매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이 매출하락을 맞이함으로 해서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거기에 코로나라는 직격탄을 맞이하여 경제가 어렵고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거의 그로기상태에 있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이대로는 사회가 지속가능하지가 않다고 본다.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없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나온 이야기들이 기본소득, 이익공유제 등의 말들이 나오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기도 한다.

* 아래는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입니다. (자살인원 수)

년도	자살율(명/10만명)	총 자살인원 수	정부	비고
2017 년	24.3	12,463 명	19대 정부	OECD 자살율 2위 하락
2018 년	26.6	13,670 명		OECD 자살율 1위 복귀
2019 년	26.9	13,799 명		

앞의 표에서 보면 2019년 총 자살자 수는 13,799 명이고,

하루 평균은 37.8 명/일입니다.

한 달로 치면 1,149.9 명/월 입니다.

한 달이면 1,100 명(매월)이상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현재 복지제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있어서 좋은게 아니고 있어야만 합니다. 절박한 경제의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함께 살기위해서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2. 기존의 복지제도를 살펴보자

해묵은 논쟁이지만 오래전부터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논쟁은 계속되어 왔다. 여기서 간단히 내용을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1) 선별적 복지 :

개념 ;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혹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을 줘서 시혜를 베푸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하여 그 사람들에게만 복지를 베푸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일정 기준을 정하여 선별한 사람들에게 복지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즉 선별되어야 한다.

장점 ;

①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다는 복지의 본래 취지에 맞다.

②보편적 복지에 비해 전체복지금액이 적게 소요된다고 본다.

③ 경제적으로 어려운게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단점 ;

①낙인효과가 있다. 즉 복지혜택을 받은 사람은 게으르고 능력이 없다고 본다. 사회적으로 실패자, 뭔가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본다. 선별과정에서 자존감에 상처를 받는다. 자신의 가난함을, 자신이 사회적 약자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는다.

②신청하여 선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갑질행태가 발생할 수 있다.

③제도를 몰라서, 혹은 어려워서 신청을 포기할 수가 있다.

④제도적으로 법의 사각지대가 생겨 신청을 못할 수가 있다.

⑤선별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통상적으로 지불되는 전체 복지비의 30%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2) 보편적 복지

개념 ;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사회적인 약자들은 정부로부터 (인간의 기본권을 누릴 권리)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정부는 도움을 줄 의무가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일정 기준을 정하여 선별하지 않고 누구나에게 똑 같이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다. 복

지를 줄 사람에 대하여 선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똑 같이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다.

장점 :

- ①복지혜택을 모두에게 주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
- ②선별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 ③선별적 복지의 여러가지 단점들이 해소된다.

단점 :

- ①모두에게 주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 ②일을 안해도 돈을 주기에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3. 새로운 복지제도의 제안

1) 복지의 본래 개념 :

복지의 본래 개념은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개념이다. 즉 선별적 복지가 본래의 개념이고 여기서 복지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선별적 복지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그 대안으로 보편적 복지이론이 출현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선별적 복지와 함께 논쟁의 주제가 되어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지란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고, 정부가 베풀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약자는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굳이 법으로 보면, 인간에게는 기본권이 있으며 기본권에는 자유권과 더불어 사회, 문화, 경제권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선별적 복지제도의 단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개념적으로는 선별적 복지가 맞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였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서로 논쟁만 했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던 걸로 보인다. 나는 1)항에서 **정부의 의무**를 어떻게하면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개진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3)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자.

지금까지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논쟁만을 해왔지 해결하겠다는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법으로 하나를 제안하려 합니다.

선별적 복지에서 복지의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였기에, 반대로 전체 국민에서 복지를 안줄 사람(복지가 필요없는 사람)을 찾아서 선별하자는 것입니다. 구태여 복지혜택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을 선별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새로운 제도를 가칭 '**맞춤형 복지**'라 이름을 붙여 보았 습니

다. 별 뜻은 없고 복지혜택을 받아야할 사람이 빠짐없이 다 받는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붙였 습니다.

4) 구체적 방법과 과정(맞춤형 복지) :

여기 국가에서 복지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을 가칭 '기본 생활비'라 칭합시다.

①복지의 대상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

②국가에서 지급하는 기본 생활비가 굳이 필요없는 사람을 선별한다

예를 들어서,

- 이미 국가가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
 - a. 병역의무 수행중인 군인, 사관학교 학생
 - b. 감옥에 있는 재소자 등
-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
 - c.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는 사람(현재 적용 중인 기준을 활용)
 - d.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현재 적용 중인 기준을 활용) 등
- 세금 채납자 ;
 - e. 세금을 내지않은 채납자 등을 선별하도록 한다.

③기본 생활비를 줄 사람을 선별한다 ;

지급할 사람의 산출식 = ①-② ,

①항에서 ②항의 사람을 뺀 나머지 '사람들 전체'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다 준다.

④ 지급하는 방법은 3가지 정도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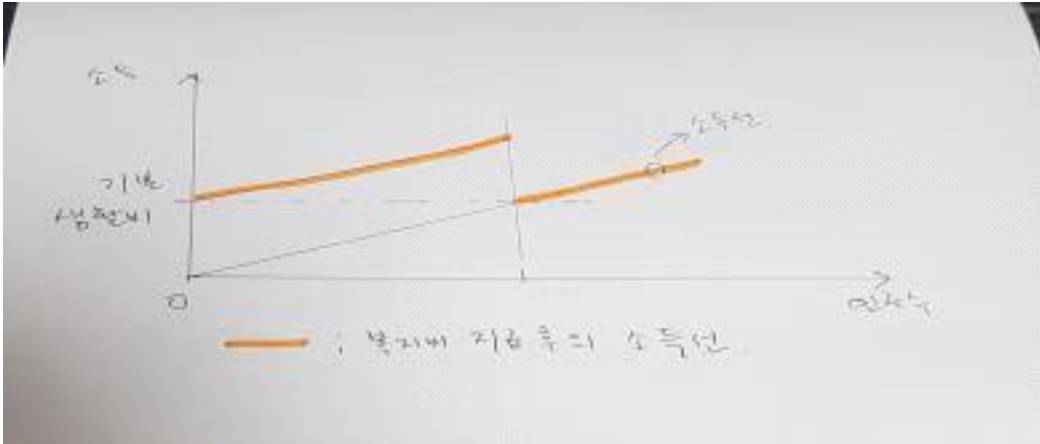
a 방법 ; 지급조건(기본소득을 줄때와 같은 방식으로)

- ③항에서 선별된 사람 전체에게
- 조건없이,
- 개인별로,
- 누구에게나,
- 똑 같이(같은 금액) 지급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 장점은 단순하여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지급 경계선에서는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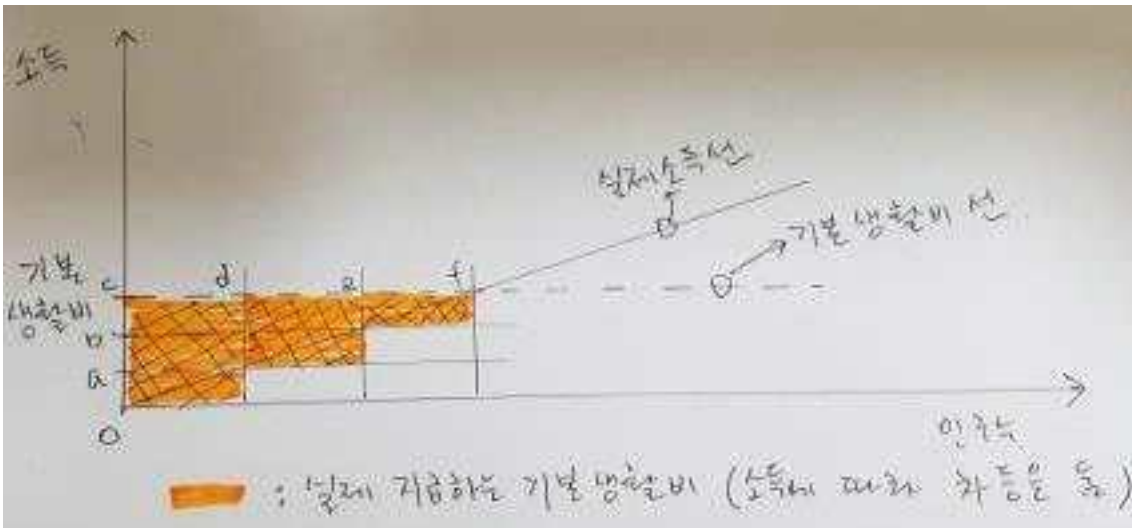


b 방법 ; 소득별로 차등을 주어 지급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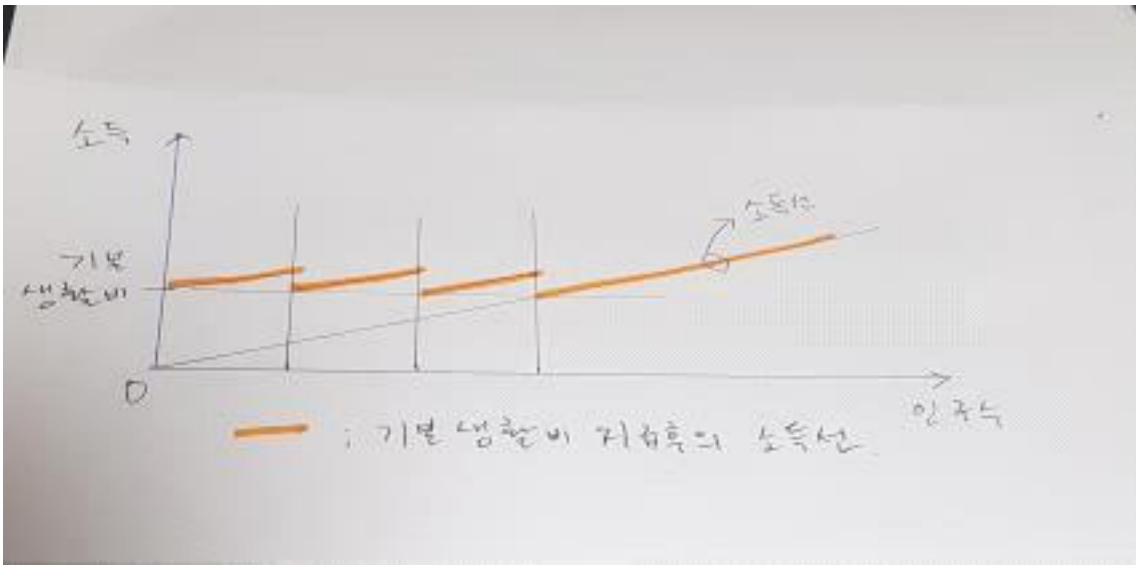
이유 ; 소득이 기본 생활비 경계선에 근접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조금 완화시켜 주고, 또 전체지급비용을 아끼려는 목적이 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면 대략 3등급으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사례를 들었다.

원래의 소득선은 o~f 로써 실소득선이나, 기본 생활비를 지급후 소득선은 c-d-e-f-실소득선으로 표시가 된다. 그리고 칼라표시된 부분은 기본 생활비 지급액과 인원수를 표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3등급을 4등급으로 나눌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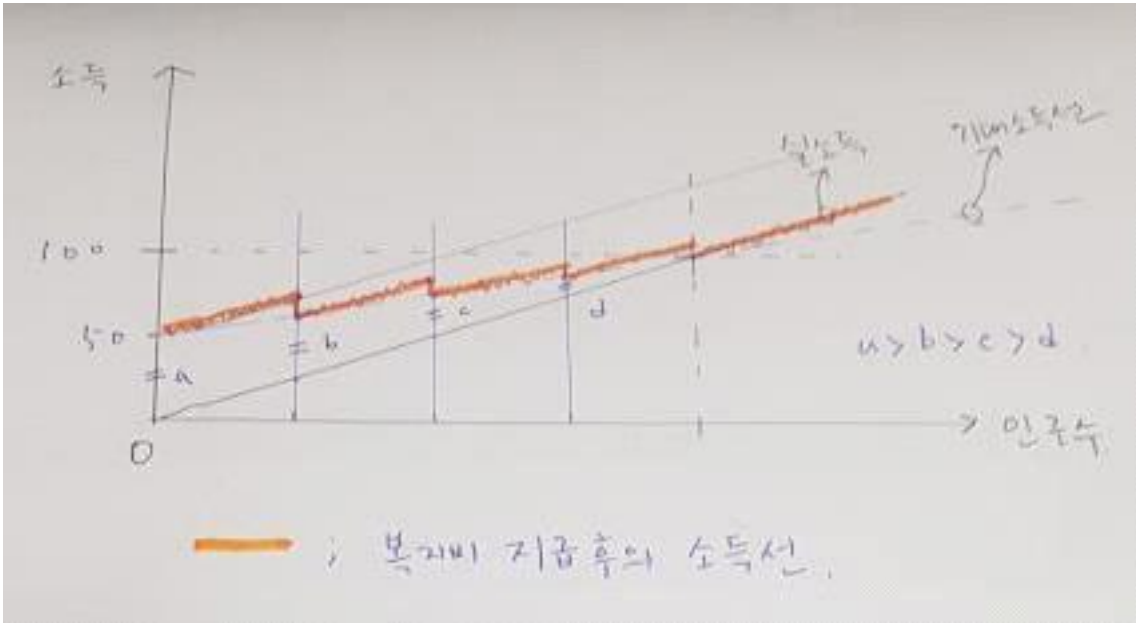
- 기본 생활비 지급 후의 소득선.



여기서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어차피 일정소득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을까 걱정은 되지만, 애초에 최소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목적달성은 한 셈이다.

c 방법 ; 지급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구간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다. 기대소득선을 임의로 정하여 각 구간마다 지원비를 달리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장점은 총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지급경계구간에서의 문제가 최소화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프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 a, b, c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행하면 될 것 입니다.

⑤이러한 방식대로 했을 경우, 형식은 선별적 복지형태로 표현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편적 복지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방법과 비교검토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의 방식** ; 정부에서 미리 복지를 받을 사람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개인이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자격심사를 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한다. 개인이 본인의 자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제안 방식** ; 국가(정부)가 미리 복지혜택을 받을 사람을 선별한 다음에 개인이 신청을 하면 명단만을 보고, 바로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정부에서 지급명단을 공고하면 개인이 자격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급 자격에 대하여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 수급 자격의 입증 책임이 개인에게서 국가로 변경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복지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의 자격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5) 새로운 제안의 장단점(현재의 선별적 복지제도와 비교하여) ;

장점 ;

① 낙인효과가 없어진다. 복지수혜를 받는과정에서 복지혜택을 받을 자격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수혜자는 복지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자존감이 상할 이유가 없다.

②공무원의 갑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③제도를 몰라서, 어려워서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다.

④법의 사각지대가 없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다.

⑤현재보다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증세가 필요없다.) 기본소득과 비교하여 국민 전체를 주지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차등하여 지급하기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⑥소위 정치적으로 포퓰리즘이라고 공격받지는 않을 것이다.

단점 ;

①공무원이 수혜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의 자격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②이론적으로는 복지비가 증가하지 않으나, 현실에서는 약간의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비 증가가 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복지비를 받아야할 사람이 억울하게 지급을 받지못한 경우가 있어서 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6) 기본 생활비 개념 ;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국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기본적 인권에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비용, 인간으로서 최저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개념을 생각하고 이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뭐라 칭하든 상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37명(2019년도 통계자료, 37.8명/하루) 정도 됩니다. 물론 자살하는 사람이 전부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최소한 한국에서 먹고사는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이고, 내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본 생활비를 주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나태해진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난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어떤 제도하에서든 있습니다. 여기서 제도가 목표로 하는 대상은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한 것이지 일부 잘못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7) 새로운 제안을 하게된 이유 중 하나 ;

우리나라 법에도, '아홉 사람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선별적 복지에서 아무리 법을 촘촘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법의 사각지대를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송파 3모녀 사건' 등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제안대로 하면, 복지비용이 조금 더 나갈 수는 있어도, 억울하게 복지를 받아야할 사람이 못받는 경우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8) 기존 지급하고 있는 복지비와의 관계설정 ;

가능하면 비슷한 성격의 복지비 항목들은 통합했으면 합니다. 잘못하면 중복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때 조심할 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전체

복지비가 더 줄어들어서는 안됩니다. 기본적인 생활비 관련해서는 점진적으로 통합하는게 좋을 듯합니다. 가능하면 복지관련 제도를 단순화 시키고 운용하기 편리하게 정비하였으면 합니다.

9) 기본 생활비를 지급했을시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

① 우선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배고파 죽지는 않을 것이기에.

②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질렀던 범죄, 부정, 부패 등의 발생이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가 훨씬 깨끗하고 밝아지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거라 기대합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불법을 안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되기에 범죄, 불법으로부터 한 발 물러설 수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③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지리라 예상합니다. ; 생활이 보장이 되면 진짜로 자기가 하고싶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④ 세상의 갑질이 없어지지 않을까?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줄어들 수는 있을 것 입니다.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이 되면, 자존감에 상처를 받을 경우 그 자리에서 나오면 되니까. 마지막 피신처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⑤ 노동법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지금은 직장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보장이 없기에 어떻게 하든지 회사에 붙어 있으려 하고, 법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일자리 때문에 최소한 목숨 거는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복지제도가 개선이 되면 생활이 보장되기에 고용문제에서 노사가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쉬운 고용과 쉬운 해고로 갈 수가 있어 노사문제에서의 갈등이 줄어들고 노동문제에서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4. 제안사항(결론)

- 1) 선별적 복지를 운용하는 방법을 바꾸자('맞춤형 복지제도'로 변경)
- 2)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많은 상황(일자리가 없는 대량 실업상태)에서 국민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기본 생활비'를 지급 합시다.

5. 증세의 문제

- 1) 제안한 방법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는 비용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억울하게 못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 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비용이 더 추가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크지는 않을거라 판단합니다. 만약에 ‘기본 생활비’를 주는데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해서 증세를 하면 될것입니다.

2) 난 개인적으로 증세도 필요하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세를 하면 선거에서 표가 떨어진다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바보가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실상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도 이해하고 수용하리라 믿습니다. 난 그렇게 용기있는 정치인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3) 한 아이를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개인이, 한 회사가 경제적으로 부를 쌓았다면 혼자서 했겠습니까? 회사로 보면 우선 경영자가 잘 했을거고, 다음은 열심히 하는 회사원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은 그 회사원이 회사 일만 열심히 하도록 돌봐주는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면 결국 국민(국가)이 되는 것이지요. 능력범위에서 세금 내는 것을 너무 억울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혼자서 한 것은 아니니까요.

6.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

1)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게 포퓰리즘이고 잘못된 것인가?
난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코로나19는 여러 가지 면에서 천재지변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지진이 발생하면 재난지원금을 주듯이, 코로나로 인하여 전국민이 피해를 보았으니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2) 다만 여기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계속 주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7. 기본소득과의 비교

1) 돈이 많이 드는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받아서 생활을 할 정도로 증세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미래의 연

구과제이지 당장 실행하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2) ‘기본 생활비’가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의 기능을 할거라 생각합니다.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본소득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이 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기본소득이 여의치 않다면, 개인적으로 여의치 않다고 생각하기에 나의 변경된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며, 제안대로 복지의 실행방법만을 바꾸어도, 현재의 선별적 복지제도의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리라 기대 합니다. 즉 증세없이 보편적 복지의 효과가 발생하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겠지요.

8. 현장에서의 적용

1) 제가 제안하는 것은 실제현장과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복지 전문가, 정부 현장실무자, 복지혜택을 받고있는 사람, 아이디어 제안자 등이 많은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좋은 복지정책이 태어났으면 합니다.

2) 현 시대의 시대정신은 제가 보기에, **정의/공정/복지** 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3가지 다 중요하지만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복지가 아닐까 합니다. 살아서 생존을 해야 정의도 공정도 이야기 할 수가 있으니까요. 또한 경제의 정의/공정이 다른 말로 하면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다 일맥상통하는 단어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시대정신에 맞는 화두**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없는, 이제껏 보지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국민들은 **항상 새롭고 신선한 것을 원합니다.**

-끝-